

<b>보도</b>	<b>2025.3.4.(화) 조간</b>	<b>배포</b>	<b>2025.2.28.(금)</b>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<b>담당 부서</b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이건필	(02-3145-7410)
	중소금융검사1국	담당자	팀 장	이정만	(02-3145-7370)
	에금보험공사	책임자	부 장	강호성	(02-758-0551)
	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	담당자	팀 장	오영일	(02-758-0581)

<b>금융감독원 · 에금보험공사, PF 여신 프로세스 점검 등을 위한 공동검사 실시</b>
--

## I    개    요

- 금융감독원은 에금보험공사와 함께 '25년 상반기중 저축은행의 PF 여신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공동검사를 실시합니다.
  - 그간 금융감독원과 에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는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 저축은행(예: 2조원 이상) 위주로 실시해 왔으나
  - 앞으로는 저축은행 업권의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여 규모와 관계 없이 주요 취약부문에 대해 합동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
- 금번 공동검사시 양 기관은 PF 대출의 심사·승인·사후관리 등 여신 취급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며,
  - 위기 상황 발생시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자본확충 계획 및 유동성 대응능력 등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.
- 향후 양 기관은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,
  -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선제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입니다.

## Ⅱ 향후 계획

- 공동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저축은행의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,
- PF 대출 부실원인, 내부통제 취약 사례 및 부실정리 지연 등의 문제점을 저축은행 업계에 전파하여 신속히 보완하고, 아울러 제도개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

## Ⅲ 기대효과

- 금번 공동검사를 통해 부실 PF 정리를 가속화하고, PF 대출 취급 프로세스도 개선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,
- 저축은행의 대출여력이 확대되고 신규 PF사업장에 유동성이 공급되어 부동산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이 촉진되고,  
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

### <참고> 금감원·예보 공동검사 개요(저축은행 대상)

- ◆ (근거) 금융위설치법(\$66), 예금자보호법(\$21) 등
- ◆ (목적)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(금감원)  
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(예보)
- ◆ (대상) 대형 저축은행 및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 등
- ◆ (실적) 연간 5~8개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검사 실시(최근 5년 기준)\*

\* ('20년) 5개사 → ('21년) 8개사 → ('22년) 7개사 → ('23년) 8개사 → ('24년) 7개사